

조승환 해수부 장관, 선박사고 인명피해 저감과 첨단 해양모빌리티 육성 방안 토론회 주재

- 안전사고, 선박 충돌·전복 등으로 인한 사망·실종 피해 집중 저감 추진
- 친환경·디지털을 중심으로 해양모빌리티 산업 육성 논의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4월 10일(월) 14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선박사고 인명피해 저감대책’과 ‘첨단 해양모빌리티 육성전략’을 주제로 정책현안 토론회를 주재하였다.

이번 토론회에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항로표지기술원, 한국선급기관장과 관련 업무 담당자들이 참여했다.

조 장관은 이 자리에서 “해양사고 인명피해 수치가 2021년 이후 감소 추세로 전환했다”라고 하면서도 “안전사고, 선박 충돌·전복 등으로 끊이지 않고 있는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난 2월에 마련한 선박사고 인명피해 저감 대책* 추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 ▲취약선박 태생적·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제도 정비, ▲인적 과실 예방체계구축 및 구조역량 강화, ▲해양안전 가치 제고 및 문화 확산

한편, “최근 국제해사기구(I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를 중심으로 선박 안전과 환경규제가 강화되고 있어 산업구조가 친환경·디지털로 재편되고 있다”라며 “해양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통해 미래의 먹거리를 선점해 나가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담당 부서 <총괄>	해사안전국 해사안전정책과	책임자	과 장	최성용 (044-200-5810)
		담당자	사무관	심규석 (044-200-5811)
담당 부서 <공동>	해사안전국 해사산업기술과	책임자	과 장	이창용 (044-200-5830)
		담당자	사무관	최원석 (044-200-5831)
담당 부서 <공동>	해사안전국 항로표지과	책임자	과 장	유은원 (044-200-5870)
		담당자	서기관	김강온 (044-200-5871)

